



# 石油類製品 價格의 適正 水準

金 泰 允  
〈油協·業務部長〉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아리는 울려 오지 않고 他人의 嫉視속에 알맹이없는 커다란 잔 치상만을 마주 한 巨人是 외롭기만 하다-

## 1. 머 리 말

우리나라의 精油業界는 良質의 低價原油의 安定的의 導入, 國內價格構造와 國際價格 構造와의 乖離度 너무 어렵고 힘든 많은 問題를 안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現製品價格水準으로 받은 衝擊은 어떠한 表現으로도 適切치 못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石油類製品價格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精油社들의 自由意思決定에 맡기기보다는 完全統制의 方法을 採択하여 이른바 行政指導體制(最高價格告示制)를 實施하여 왔다.

아울러 1978年末 이란事態이후 계속된 原油價의 大幅의이고도 持續的인 上昇과 1980年 1月부터 變動換率制의 실시에 따른 換率의 急騰 등으로 政府에서는 石油安定基金制度나 油價連動制를 採択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現行 最高價格告示制에 의한 現在 製品價格水準은 精油社의 立場에서 볼 때 滿足할 만한 것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까? 本人이 보기에는 가장 根源的인 점이 看過되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精油社의 生産費算定과 適正 利潤保障에 관한 問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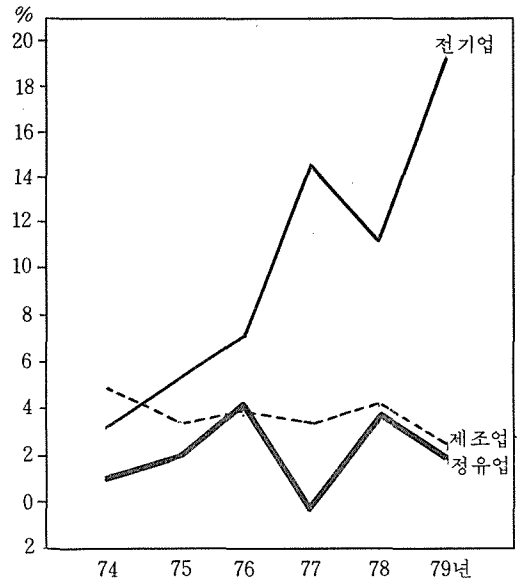
## 2. 精油社의 收益狀況

위 問題와 관련하여 그 동안 精油社들의 收益狀況을 살펴 보자.

企業의 全般的인 經營活動의 成果를 總括的으로 把握하고 他企業(또는 業種)과 比較함에 있어 가장 좋은 指標은 売出額 經常利益率이므로; 第1次 石油危機이후인 1974년부터 資料入手가 許容되는 1979년까지의 精油産業의 同利益率은 그림 1 에서와 같이 製造業平均利益率보

다 낮고 第2次 에너지産業인 電氣業의 利益率 보다는 더욱 낮으며 그 隔差 또한 점차 커지는 傾向에 있다. 이는 1973年 第1次 石油危機 이전의 精油産業이 비교적 높은 收益을 享有한 것에 비하면 아주 對照的인 現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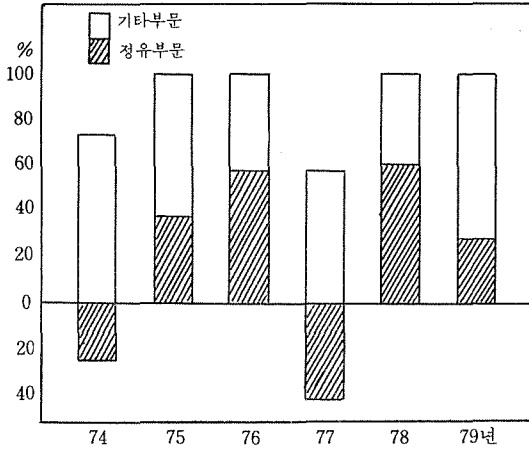
더구나 이러한 精油社들의 利益構成을 살펴 보면 그림 2 에서와 같이 精油社들의 本業인 精油部門보다는 오히려 副業인 其他 部門 즉 石油化學, 發電, 潤滑油 등 部門에서 利益이 더 많이 發生함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974年과 1977年에는 精油部門의 赤字를 其他 部門의 黑字로 補填하는, 理解하기 困難한 事態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는 것일까?



## 3. 石油類製品價格策定の 基準

위와 같은 問題가 發生하는 가장 根本原因은 政府當局에서 石油類製品價格을 策定할 때, 原

그림 2. 정유업의 이익구성(세후)



資料: 協會 調査部

세의 94.36%를 占有하고 있는 原油 및 그 導入附帶費는 實際의 導入費用만큼을 認定하고 5.64%를 占有하고 있는 其他生産費의 算定에 있어 精油業界에서 가장 歷史가 오랜 油公을 基準으로 하여 油公의 精油部門의 損益이 零이 되는 水準에서 決定하기 때문이다.

政府当局에서 위와 같은 價格策定基準을 採択하게 된 緣由를 理解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基準의 適用은 根拠가 薄弱하다. 생각컨대 原価=價格이라는 兪想은 石油類製品價格이 完全히 市場機能에 依存하고 供給이 需要를 超過할 때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原価=價格이라는 油價制度아래서도 精油社들이 精油部門에서 極小의 收益을 올린 例가 있으나 이러한 收益은 本來的인 收益이라기 보다는 多分히 經過의이요 機會的인 性質의 것이다.

이에 따라 實際로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이 惹起되게 된다.

첫째, 價格算定時 反映된 其他生産費보다 높은 其他生産費를 負擔하는 新設精油社나 小規模 精油社는 赤字를 免치 못할 것이며,

둘째, 損益分岐點에서 價格이 策定되므로 精油社는 資本蓄積이 不可能하고 結果的으로 單純再生産 내지 縮小再生産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精油社들이 아무리 努力해도 利益을 낼 수 없으므로 精油社들은 經營合理化를 위한 努

력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問題들은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즉 精油社의 赤字發生은 國家基幹이 되는 에너지産業으로서의 精油産業의 萎縮을 招來하고, 擴大投資의 困難은 國內生産을 限定시켜 漸增하는 國內石油需要에 副應할 수 없어 石油製品의 輸入을 不可避하게 만들 것이며, 放慢한 經營은 結局 그 弊害가 一般消費者에게 轉嫁되는 등 國民經濟에 많은 不利益을 招來하게 된다.

따라서 政府가 採択하고 있는 現行 油價策定基準은 是正함이 마땅하다. 企業의 利潤動機를 전혀 認定하지 않는 價格政策이 資本主義經濟에서 과연 어느 程度 說得力이 있을 것인가?

#### 4. 適正價格水準

이를 解決하려면 價格決定基準은 ① 其他生産費의 現實化와 ② 適正利潤率의 保障으로 즉 石油類製品價格=(原油導入額+現實的인 其他生産費)×(1+適正利潤率)의 等式이 採択되어야 할 것이다.

##### 가. 其他生産費의 算定

其他生産費는 油公을 基準으로 할 것이 아니라(1980. 11. 19價格引上時는 油公, 湖南, 京仁 3社의 合計平均値로 하였지만) 精油業全體의 費用을 合計하여(물론 1會社에만 適用되어야 할 特殊費用은 除外) 生産物量을 加重値로 한 單位當 生産費를 計算하여 이를 原価上 其他生産費로 計上하여야 할 것이다.

##### 나. 適正利潤率

무릇 企業이 維持·存統하고, 나아가 擴張·發展해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自己資本利子와 危險料만큼의 利益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가지 要素를 合한 利益은 企業의 最小限의 必要利潤일 것이며 이것이 곧 適正利潤(Proper Margin)이다.

會計學上 適正利潤率은 다음과 같은 算式으로 表示된다. 즉

$$\begin{aligned} \text{適正利潤率} &= \frac{\text{適正利益}}{\text{總資本}} = \frac{\text{自己資本利子} + \text{危險料}}{\text{總資本}} \\ &= \frac{\text{利子}}{\text{自己資本}} \times \frac{\text{自己資本}}{\text{總資本}} + \frac{\text{危險料}}{\text{總資本}} \end{aligned}$$

□ 특별기획 / 석유가격제도를 말한다

$$= \text{自己資本利率} \times \text{自己資本構成比率} + \text{危険率}$$

로 된다.

그리고 위의 算式에 法人稅를 勘案하면 다음과 같다.

즉, 適正利潤率(總資本利益率) = (自己資本利益率 × 自己資本構成比率 + 危険率) ÷ (1 - 法人稅率)로 된다.

그러면 精油社들의 適正利潤率은 어느 程度이어야 하는가?

精油社의 過去 5年間 自己資本構成比率, 1年滿期 定期預金利率(每年末)을 勘案한 自己資本利率 및 企業의 危険率을 總資本對比 3%로 보아 計算해 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精油社 適正利潤率 算出內訳

(單位: %)

	自己資本利率	自己資本構成比率	危険率	法人稅率	適正利潤率 (總資本純利益率)
1975	12	16.968	3	40	8.394
1976	15	17.768	3	40	9.442
1977	16.2	21.760	3	40	10.875
1978	14.4	20.592	3	40	9.942
1979	18.6	27.641	3	40	13.569

또한 總資本利益率은 売出額利益率과 資本回轉率의 相乘으로 計算되어진다.

$$\text{總資本利益率 (適正利潤率)} = \frac{\text{利益}}{\text{總資本}} = \frac{\text{利益}}{\text{売出額}} \times \frac{\text{売出額}}{\text{資本}} = \text{適正売出額利益率} \times \text{資本回轉率}$$

따라서 위의 式에 適正利潤을 얻기 위한 売出額利潤率을 算出해 보면 표 2 와 같다.

표 2 精油社 適正 売出額 純利益率 算出內訳

(單位: %)

	總資本利益率 (適正利潤率)	資本回轉率	適正売出額純利益率	實際売出額純利益率
1975	8.394	153.941	5.453	1.2
1976	9.442	167.253	5.645	2.0
1977	10.875	206.20	5.274	3.0
1978	9.942	228.102	4.359	△0.2
1979	13.569	225.593	5.309	2.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精油社의 適正売出額純利益率은 平均 5%線이상이 確保되어야만 되는 데 實際로는 平均 1.6%線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非精油部門에서의 収益에 依存하는 바가 相當히 크다.

그러면 이러한 適正利潤은 油價策定時 어떻게 反映되어야 할까?

油價引上이 国内物價와 景氣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한 점으로 보아 一時에 이를 價格에 反映시키는 것은 相當히 無理일 것이다. 따라서 筆者의 所見으로는 一定期間을 두어 段階적으로 売出額純利益率 5%線까지 反映시켜 감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5. 맺 는 말

어느 企業에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株主는 上場企業의 株式配當率과 비교하여 최소한 定期預金利率에 相當하는 配當을 願할 것이며, 企業家로서는 위 株主配當에 社内留保 및 擴大投資를 위하거나 不測의 損失에 對備할 수 있는 危險料를 充足시킬 수 있는 利益의 確保를 願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憂하고 있는 諸般經濟事情이 政府, 精油社, 消費者의 合心協力과 讓步에 의하지 아니하면 打開하기 힘든 狀況이고 油價引上이 国内物價에 미치는 영향이 甚大한 점도 있으나, 國家基幹産業으로서의 精油産業의 健全

한 運營이 政策上 否定되어야 할 아무런 根據도 없다.

따라서 筆者는 現行 安定基金制度에 의해 精油社의 缺損을 補填하는 彌縫策을 避하고 關係當局의 責任者도 個人的 意見으로 披瀝하였듯이 이러한 問題는 價格機構를 통하여 根源의으로 解決하여 감이 좀더 合理的이 아닐까? \*